	<h1>보도자료</h1> <h2>9.23(수) 14:00부터 보도 가능</h2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---	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국 서민금융과		
책임자	김기한 과장(2156-9470)	담당자	김성진 사무관(2156-9471) 김민하 사무관(2156-9478)
배포일	2015. 9. 22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
		총	13매

제 목 :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(6.23)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'소액 신용카드' 7월부터 약 5,200장 발급 등 세부과제를 신속히 차질없이 진행 중
- ② '긴급생계자금'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2,330명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수요에 도움
- ③ 자활 패키지 상품(드림셋), 미소드림적금(Micro-saving)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·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곧 출시

-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'15.9.23(수) 미소금융중앙재단* 현장을 방문하여,
- * 「휴먼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」에 의거 '08.3월에 출범, 저소득·저신용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·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 수행
- 서민금융 이용자,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」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,
 -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,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

※ 서민금융 유관기관 현장방문 개요

- 일시/장소 : '15.9.23(수), 14:00~15:00 / 미소금융중앙재단
- 주요 참석자
 - (금융위·유관기관) 금융위원장, 금감원 부원장,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, 국민행복기금 이사장, 신복위 위원장, 신보중앙회 회장, 캠프 부사장, IBK 은행장
 - (서민금융 이용자) 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」 주요 대책 수혜자(4인)
- 주요 논의사항 : 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」 추진실적 점검 및 의견청취

- 간담회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관련하여 폭넓게 의견을 공유하였음
- 긴급생계자금, 장애인자립자금, 임차보증금, 소액신용카드 등 신설 지원제도 수혜자의 이용경험 및 소감 등을 청취
 - 각 관계기관장이 그간 주요 추진실적·우수사례 등을 보고하는 가운데,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원 방안이 예정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음에 공감함

※ 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(6.23)」 주요 추진실적

- ① (소액신용카드)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약 5,200건 발급(☞ p.6 참조)
- ② (긴급생계자금)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,330건(88억원) 지원(☞ p.5 참조)
- ③ (임대주택보증금)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총 2,040건(266억원) 지원(☞ p.8 참조)
- ④ (자활·재기지원)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을 확대(최대 50%→ 60%), 공·사적 채무조정 연계지원(Fast-Track 부산지역 확대) 강화 등(☞ p.9 참조)

□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일선 실무자들과 관계기관장들의 노고가 큼을 강조하며, 감사의 마음을 표함

□ 또한,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·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 지원의 연계가 중요하며,

○ 앞으로 본격화될 ① 자활 패키지 상품(드림셋), ② 미소드림적금(Micro-saving)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

- ①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(최대 월 20만원)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(3년 적립시 세전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)
- ②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(최대 월 10만원)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매칭 저축(3배)하여 만기시 추가 이자지급(월 10만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원 수령 가능)

□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“‘서민금융’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, 우리 금융이 ‘따뜻한 금융’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”이라고 언급하면서

-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‘서민금융’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,
- 특히,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‘서민금융진흥원’의 조속한 설립,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힘
- 아울러, 종합적·입체적 자활·재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, 지자체, 금융회사 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

※ <별첨> 금융위원장 간담회 말씀자료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참고 1

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(6.23)」 주요 추진현황[요약]

구분		주요내용	시행일자	실적 (9.18일 기준)	페이지
정책서민상품 금리부담 경감		· 햇살론 · 새희망홀씨 · 바퀴 드림론 상한금리 인하 (12.0%→10.5%)	8.3	-	p.5
성실상환자 정책지원 강화	긴급생계 자금 대출	· 미소금융 · 새희망홀씨 · 햇살론 1년 이상 성실 상환시 최대500만원 대출	(미소) 7.13 (새희망) 8.17 (햇살론) 8.24	2,333건(87.7억원)	p.5
	소액신용 카드 발급	·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 소액신용카드(50만원 한도) 발급	7.1	5,195건 발급	p.6
	소액대출 인센티브 강화	·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대출한도 확대 (1,000만원→1,500만원)	9.1	1,815명 금리인하 (약1.1억원) 혜택	p.7
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	임차보증금 대출 확대	· 대출한도 확대 (1천만원→2천만원) · 지원대상 확대 (NH공사→SH공사 등 포함)	7.1	2,041건(266억원)	p.8
	장애인 생계자금 대출	·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 생계자금 저리 대출 (최대 1,200만원, 3%)	7.1	24건(2.2억)	p.8
	차상위 이하 고령자 우대금리 지원	·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 (65세 이상) 은행 예금 가입시 우대금리(0.8%~1.2%p) 추가 지원	8.3	216건(73백만원)	p.8
채무 연체자 자활재기 지원	차상위계층 원금감면율 확대	· 차상위계층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 (현행 최대 50%→60%)	(행복기금) 8.1 (신복위) 8.3	59명(약 3억원) 차상위계층 지원	p.9
	공 · 사적 채무조정 연계	· 사적 채무조정기관(행복기금, 신복위)과 공적 채무조정기관 (법원)간 연계 지원 강화 (전국단위 확대)	계속시행	부산지역 개인회생 · 파산 총 196명 연계	p.9
채무조정-일자리-재 산형성 연계 “드림셋”		· 채무조정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월 10/20만원 적립시, 정부에서 1:1 매칭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을 지원하여 최대 2,000만원 재산형성 지원	8.31 (접수시작)	9.25까지 신청자 접수 중 → 10월 중 본격 시행 예정	p.10
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목돈마련 “미소드림적금”		·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대상 · 대상자 일정금액 저축 후 저축액의 3배를 매칭 ·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이자 전액 수취	9월말 출시에정	-	p.11

참고 2

「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(6.23)」 추진실적

1. 정책 서민상품 금리부담 경감

- 최근 기준금리 인하,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**햇살론·새희망홀씨·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(8.3일부터 시행)**

* (햇살론·새희망홀씨·바꿔드림론) 상한금리 12.0% → 10.5% [△1.5%p]

⇒ 금리인하에 따른 **지원 실적 상승 및 수혜자의 이자부담 완화**

< 사례 : 바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 수혜자 >

- ◇ 직장인 A씨(40대, 남)는 음식점 운영을 위해 저축은행으로부터 2,200만원의 고금리 대출(연이율 31.9%)을 받았으나, 경기가 어려워 결국 폐업
 - 이 후 조선업 협력사에 취직하였으나 빠듯한 월급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
- ◇ 지원대책(6.23) 발표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금리가 인하된 바꿔드림론을 신청, 8%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매월 기존 대출이자(약 59만원) 보다 적은 금액(약 48만원)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됨

2.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

- ① **정책 서민금융상품(햇살론·새희망홀씨·미소금융)의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'긴급생계자금 대출(최대 500만원)' 신설**

* 시행일 : (미소금융) '15.7.13, (새희망홀씨) '15.8.17, (햇살론) '15.8.24

⇒ **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악화·채무누적의 악순환 제거**

(9.18일 기준, 단위 : 건, 억원)

미소금융		새희망홀씨		햇살론		계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882	43.0	391	12.7	1,060	32.0	2,333	87.7

< 사례1 :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>

- ◇ 도소매업을 운영중인 B씨(40대, 남)는 미소금융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로, 최근 모친의 위암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
- ◇ 때마침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출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기존 거래 중인 미소지부에 신청,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을 지원받아 모친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무사히 진행하게 되었음

< 사례2 :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>

- ◇ 직장인 C씨(30대, 남)는 ○○은행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중인 자로,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여 당초 11.5%에서 9.5% 수준으로 이자 감면혜택을 받음
- ◇ C씨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치아가 손상되어 치과치료비로 긴급자금 수요가 발생하였으나,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생계자금이 신설되어 치과치료비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음

< 사례3 : 햇살론 긴급생계자금 수혜자 >

- ◇ 직장인 D씨(32대, 남)는 햇살론 생계 및 대환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 고금리 채무를 상환
- ◇ 최근 다니던 직장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추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임
- ◇ 그간 햇살론을 성실상환한 이력으로 긴급생계자금 3백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배우자의 병원비 등 필요자금으로 이용함

- ② **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 대해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(KB카드)**

* 시행일: '15.7.1 ('15.6.29, KB카드-신복위-캠코-국민행복기금 간 MOU 체결)

- 이용자 분석 결과, 주로 생필품 지출 용도(슈퍼마켓, 편의점, 한식당, 대형 할인점 등)로 카드를 사용하며, **사용비율*이 80%에 이르는 등 신용카드 이용이 절실했던 분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평가**

* 발급된 카드 중 실제 사용되는 카드의 비율로, 일반 카드의 사용비율은 약 60% 수준

⇒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**제도 금융권 이용기회 확대 및 신용등급 조기 상승 도모** (9.18일 현재 5,195건 발급)

< 사례1 : 국민행복기금 소액신용카드 수혜자 >

- ◇ Y씨(50대, 여)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은행대출로 인해 신용카드,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대출 연체가 지속됨. '13.6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 받아 매월 11만원씩 성실상환중임
- 24개월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해 캠프의 안내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음
- ◇ 매월 40만원 이상 생활비 및 병원비로 요긴하게 활용중이며, 제도 금융권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도로 신용을 회복해나가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함

< 사례2 : 신복위 소액신용카드 수혜자 >

- ◇ 자영업자인 B씨(30대, 남)는 재직 회사가 경영악화로 폐업하면서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금융채무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회복을 신청
- '09.11월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 후 정상 이행(96회 중 65회 납입) 중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음
- ◇ 소액결제, 후불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여 생활이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,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도 상승한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나타냄

③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- 장기(36개월) 성실상환시 대출 한도 확대(1,000만원 → 1,500만원, 9.1일부터 시행)

-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인하(8.17일부터 시행)

* (현행) 9개월 성실상환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%로 대출 가능

⇒ (개선) 9개월 4% / 12개월 3.8% / 24개월 3.5% / 36개월 3.0%

**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내규개정, 전산개발 등을 통해 10월 중 시행예정

⇒ 시행일 이후 신청한 2,286명 중 1,815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자 절감액은 약 1.1억원

< 사례 : 신복위 소액대출 수혜자 >

- ◇ 직장인 S씨(30대, 남)는 '11.10월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 후 성실상환(58회 중 41회 납입) 중으로, 장기간 투병중인 부친의 병원비가 지속 증가하여 제도금융권에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거절됨
-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하였으나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신복위 소액대출을 신청하게 됨
- ◇ 신복위의 소액대출(고금리차환자금 1,150만원)을 통해 평균금리 34.8%의 대부업체 채무를 연 3% 대출로 전환, 월 30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함

3.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신상품 도입

①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(미소재단)

- 대출한도(현행 최대 1천만원 → 2천만원, 7.1일부터 시행), 지원대상(현행 LH 공사 → SH 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, 7.28일~) 확대

⇒ 3.2일~9.18일 현재 총 2,041건(266.1억원)을 지원하였으며, 특히 7.1일 이후 대출 확대 시행으로 1,266건(총 193.4억원) 지원

< 사례 : 미소금융 임대주택보증금 수혜자 >

- ◇ 운수업(법인택시)에 종사중인 E씨(60대, 남)는 은평구 진관내동 內 국민임대 아파트(SH공사)에 거주 중(월세 20만원, '12년 말 입주)으로, 낮은 소득으로 월세가 다소 부담이었으나,
- ◇ 지원대책(6.23)에 따라 7월부터 SH공사 국민임대주택에도 전환보증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2천만원을 전환보증금으로 대출받아 월세가 9만원 까지 낮아져 월세 부담이 완화됨

②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저리대출(미소재단)

* 최대 1,200만원 한도, 3%, 7.1일부터 시행

⇒ 9.18일 현재 총 24건(2.2억원) 지원

< 사례 : 미소금융 저소득 장애인 생계자금 수혜자 >

- ◇ G씨(50대, 남)는 10여년전 질병의 후유증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고,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용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중
- ◇ 최근 미소금융에서 출시된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1,200만원을 대출 받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점차적인 수익 확대를 기대함

③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(65세 이상)가 은행 예금 가입시 0.8%~1.2%p 범위내 우대금리 추가 지원(16개 은행 자율 시행)

*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수신상품(예: 6% 수준의 고금리상품 등)에 '차상위 이하 만65세 이상'을 가입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

⇒ 9.18일 현재 총 216건(73백만원) 지원

4. 채무연체자 자활·재기 지원 강화

- 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을 확대(현행 최대 50%→ 최대 60%)

* 시행일 : (국민행복기금) '15.8.1, (신복위) '15.8.3

- ⇒ 제도개선 후 총 59명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약 3억원(1인당 평균 603만원)의 채무감면 효과

< 사례 : 국민행복기금 차상위계층 채무 감면 확대 수혜자 >

- ◇ J씨(50대, 남)는 사업 실패로 형제들의 도움과 최근 공공근로 일을 시작하며 어렵게 생활해오던 중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신청
- ◇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후 원금보다 많았던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60%까지 감면 받아 매월 10만원씩 분할상환하게 되었으며, 재기에 성공해 TV 영상광고 제작 일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힘

- ② 사적 채무조정기관(국민행복기금·신복위)과 공적 채무조정기관(법원 회생·파산)간 연계 지원을 강화, 전국단위로 확대 추진

- 기존에 서울에서만 시행해온 Fast-Track*을 지방법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

* 행복기금·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, 법률구조공단에 인계→ 법원은 부채증명서 생략, 재산·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절차 단축(통상 6개월→ Fast Track 3개월)

** 신복위는 '15.6.10, 국민행복기금은 '15.7.22 부산지방법원과 MOU 체결

- ⇒ 제도시행 후 부산지역에서 개인회생·파산 총 196명 연계

< 사례 : 신복위 Fast-Track 지원 사례 >

- ◇ L씨(60대, 여)는 고령의 기초수급자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, 이자 및 원금의 최대 70%를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향후 10년간 매월 약 31만원씩 상환해야 하는 상황
- 신청인의 소득, 나이,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Fast-Track으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◇ 평균 8개월가량 소요되는 개인파산 절차를 Fast-Track을 통해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, 서류발급·변호사 비용 등 절약으로 경제적 혜택 지원

참고 3

채무조정-일자리-재산형성 연계 "드림셋" 상품

- (추진경과) 복지부와 협업하여 연체자의 일자리-재산형성-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자활상품('Dream 셋') 도입('15.6.23,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)

* 금융위, 복지부, 캠프, 신복위, 중앙자활센터 간 MOU 체결('15.8.21)

- 7개 지자체(인천, 부산, 경기, 강원, 전북, 전남, 경북)에서 850명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, '15.8.31~'15.9.25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신청자 접수 중

- (사업내용) 캠프·신복위 채무조정자(가구원 포함) 중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 참여시 재산형성 및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공

- (일자리 지원)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시 월 최대 110만원 내외 급여 지급

- (자산형성) 참여자가 내일키움통장에 10/20만원 적립시 정부에서 매칭 장려금(1:1) 및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(최대 15만원) 적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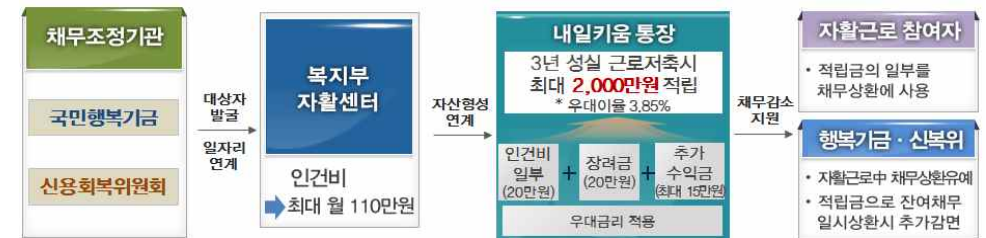
* 당초 10만원 적립시 1:1매칭 등을 통해 최대 1,300만원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나,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20만원까지 적립 범위 확대

- 월 최대 55만원 적립으로 3년 적립시 최대 2,000만원 재산형성가능

* 적립금의 20%는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하여 부채감소 추진

- (채무조정) 채무조정 약정 체결시 이자는 전액, 원금은 최대 60% 감면

- 자활근로기간 중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(최대 2년)하고, 적립금 등으로 조기 완제시 채무잔액의 15% 추가 감면 지원



- (향후계획) '16년 초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본 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실시 검토

참고 4

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목돈마련 "미소드림적금" 상품

- (추진경과)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형성을 지원(15.6.23,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)

* 미소금융 기부협약 체결 5개 은행(우리은행, KB은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, IBK은행)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

- (사업내용)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('미소드림적금') 운영 (Micro-saving의 일환)

* 단,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

- (대상)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*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

*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인 자

- (방식) 대상자가 일정금액(월 10만원 이내)을 저축하면(최대 5년)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하여 저축(최대 3년)

- 만기시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*을 수취

* 본인 저축액 및 미소금융재단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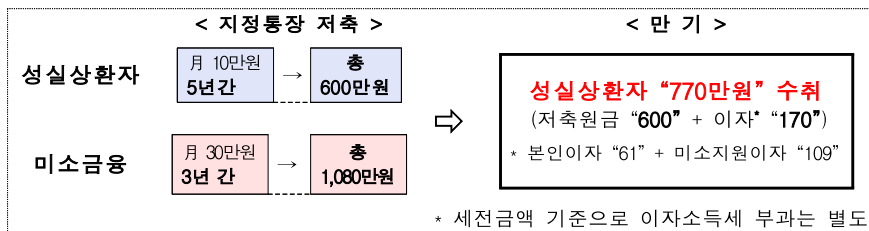
- (금리)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 (3년 만기시 4.0%)

* 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 시, 총 448만원 수령 (⇒ 실질금리 연 16% 효과)
- 본인저축금 360만원 + 이자전액 88만원(본인이자 22만원 + 미소지원이자 66만원)

- (취급기관)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가능(☎ 1600 - 3500)

- (향후계획) '15.9월말부터 상품 출시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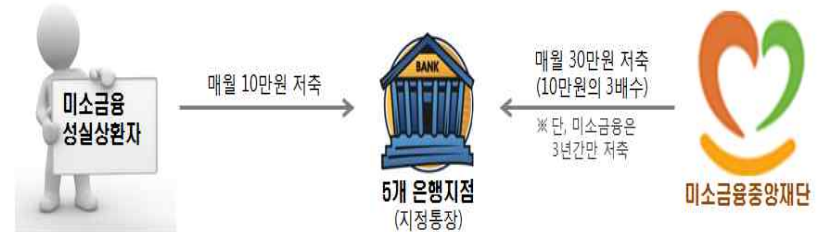
<Micro-saving 지원효과(5년 저축시)>



< 신청 및 통장개설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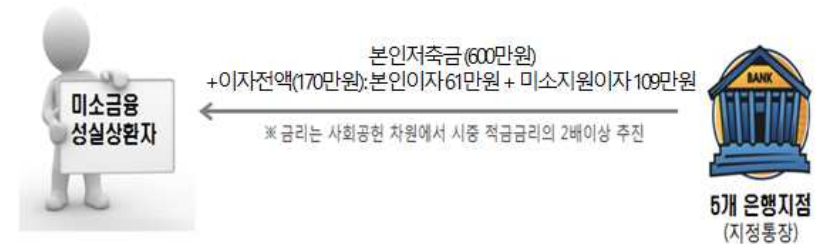


< 저축(5년간 매달 10만원) >



※ 적용 우대금리 : 1년 만기(3.6%), 2년 만기(3.8%), 3년 ~ 5년 만기(4%)

< 만기시 >



* 세전금액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부과는 별도

- 부천 서민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미소금융 및 신복위 채무조정 등 서민 금융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*

* 부천 통합지원센터 설립('14.11월) 전후 10개월간 비교

① (미소금융) 기존 대비 대출* 34%, 지원금액** 46% 증가

* 대출 : (설립전) 96건 → (설립 후) 129건

** 지원금액 : (설립전) 8.1억원 → (설립 후) 11.8억원

② (신복위) 인천·부천지역 방문상담* 25%, 채무조정** 18% 증가

* 방문상담 : (설립전) 9,443건 → (설립 후) 11,761건

** 채무조정 : (설립전) 5,094건 → (설립 후) 6,007건

③ (햇살론) 취급 저축은행 분점 입점으로 햇살론 13.6억원(96건) 신규 지원

④ (취업지원) 부천시 일자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24명 취업지원

⇒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전국 32개소*의 통합지원센터 신속 구축이 가능하여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

* 기존 2개소 + 신용회복위원회 기존 지점 24개소 활용 + 6개 지역 신규 개소 등

- 한편,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152개소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 구축시, 현행 유관기관 협업 방식 대비 연간 운영비 약 60억원 및 상담인력 약 130명 절감 가능

<서민금융 네트워크 확대 계획>

단위: 개소		현재(a)	진 흥원(b)	신설(b-a)
통합지원센터		2	32	30
상담 지원센터	고용복지*센터	14	52	41
	지자체·유관기관 등	23	68	45
계		39	152	113